

번창하는 도시

메이지시대(1868~1912 년) 후반 이후 구시로는 어업, 임업, 석탄산업, 해운업의 중심지로서 번창했습니다. 경제가 호황을 누리면서 인구가 증가했고, 1922 년에 구시로시가 되었습니다. 신문이 창간되었고, 정착민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가게가 늘어났습니다.

구시로의 겨울 기온은 영하에 머무는 경우가 흔합니다. 메이지시대에는 기모노 위에 입는 '가쿠마키'라는 양털로 된 큰 솔이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남성들은 망토와 모피 옷감이 달린 소매가 없는 양모 코트인 '니주마와시'를 입었습니다. 이 '니주마와시'는 스코틀랜드의 인버네스 코트를 바탕으로 양복뿐만 아니라 일본식 복장 위에도 입을 수 있도록 개량한 것입니다.

구시로는 사사키 요네타로(1868~1951 년) 같은 기업가 정신이 탁월한 사람에게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는 구시로보다 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이주해, 1901 년 쌀과 기타 생필품을 파는 가게를 열었습니다. 구시로의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된 그는 시의회 의장으로 취임했고, 구시로 지방의 역사를 처음으로 집필했습니다. 그의 가게 간판에는 가게 이름이 금박으로 적혀있었는데, 지금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